

16-272 to 16-274: 원수를 갚자

 hdhstudy.com/1966/16-272-to-16-274-%ec%9b%90%ec%88%98%eb%a5%bc-%ea%b0%9a%ec%9e%90/

원수를 갚자

1966.06.26 (일), 한국 서울 제3교회(종로구 송인동)

16-272

원수를 갚자

[말씀 요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다. 그 중에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통치자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타락권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16-272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심정적인 사람이 없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정을 품을 수 있는 천주적인 인간이 없었다. 새로운 이념을 중심삼고 이 세계를 정비할 수 있는 표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심정적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다.

세계적인 중심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적인 환경이 닦여져야 된다. 개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개인을 대표할 수 있는 표상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표상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는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표상을 세우고,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표상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역사 노정에서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은 개인을 세워 그 개인을 중심삼고 하나로 묶어 놓으려고 했지만 무지한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역사를 대신하고, 시대와 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랑이다. 하나님도 그런 사랑 앞에서는 굴복하신다. 사랑은 전체를 굴복시킨다. 그 사랑 속에는 개인도 들어가고, 국가도 들어가고, 세계도 들어가고, 하나님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개인, 가정, 국가, 세계를 중심한 사랑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가정적인 승리를 했다 해도 가정적인 탕감조건을 세워 놓지 못하고, 국가적인 승리를 했다 해도 국가적인 탕감조건을 세워 놓지 못하고, 세계적인 승리를 했다 해도 세계적인 탕감조건을 세워 놓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16-273

천주주의와 천주적인 인간

기독교에서는 대심판을 말하고 있다. 선과 악을 갈라서 선은 승리하고 악은 심판당한다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순천자(順天者)는 존(存)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고 했다. 그것은 천도를 말한 것이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다. 저기압권이 형성되어 커지면 태풍이 부는 것이다. 오늘의 역사는 세계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인다. 그것은 세계적인 심판선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중심삼고 나가야 한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진리, 즉 이론을 중심삼고 서로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국경을 초월하는 천주주의(天宙主義)가 나와야 한다. 주의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세계적인 종말이 되면 민주와 공산은 전부 침범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흡수할 수 있는 주의가 나와야 한다. 즉 개체를 중심삼고 전체를 묶어 놓을 수 있는 주의가 있어야 한다.

끝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이요 심정이요 가치이다. 즉 소망과 사정과 심정이 문제인 것이다. 오늘날 득세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주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역사의 소원인 종교는 아직 살아 남아 있지만 그것을 막으려던 위정자들은 전부 사라지고 말았다. 높은 소원을 중심 삼은 기독교는 승리했다.

그러면 우리 통일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나? 숭고한 이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그 소원의 세계에 제일 먼저 정착하자는 운동을 하는 곳이다. 통일교회의 소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 하나님 대신 천주를 주관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이다. 앞으로 올 세계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다. (중략)

16-274

원수를 갚으려면

6천년의 역사는 잃어버린 참다운 사람 하나를 다시 찾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다리 놓으면서 나왔다. 개인을 다리 놓고, 가정을 다리 놓고, 국가와 세계를 다리 놓으면서 소망과 사정과 심정이 하나님과 같은 한 사람을 찾아 나왔으니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상하 좌우 동서남북을 초월하는 역사적인 초점이 바로 구세주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밖으로 뻗어 나갔지만, 중심이 결정되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를 중심삼고 충효열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절대적인 이념, 절대적인 사정, 절대적인 심정의 일체를 이루어야 된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일치될 수 있는 소망, 사정, 심정을 예수님의 직계 자녀를 중심하고 이루려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 제자들을 중심하고 이루려 했다. 그러나 그것이 일직선상에 서지 못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재림주는 예수님이 세우려던 소망, 사정, 심정 이상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절대적인 기준 위에 서야만 원수를 갚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참소를 받게 되어 원수를 갚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외적인 통일보다 절대적인 내적 통일을 해야 한다. 행복이나 평화에서 심정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대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심정이다. 심정은 역사를 벗어나 절대적인 기준에서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탕감조건을 세워 사탄을 추방해야 한다. 조건이 남게되면 사탄이 침범한다.

심정의 인연은 편안한 자리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 자리에서 죽어 쓰러지지 않고 세계적 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넘어서 부활의 승리적인 영광을 차지해야 맺어지는 것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명령하고 나는 그 명령을 받아 실천해야 한다.

인류역사에 있어서 여러분은 조상이 되는 것이다.

세계가 통일교회를 추방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꿈쩍하지 않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두 가지의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는 역사적인 탕감을 하지 못한 영계를 위하여, 또 하나는 앞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창건해야 할 어린이를 위하여.

한국은 세계의 꼭대기다.

심정의 세계는 통하게 되어 있다.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싫다고 해도 주고 싶은 사람이 되라.

이제 우리는 공격할 때가 왔다, 우리가 포위작전을 전개하여 삼백만 서울시민을 인도하여 뜻을 같이한다면 한국은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된다면 아시아, 세계는 시간 문제인 것이다. *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 [RSS](#)